

새 예루살렘이 됨

1/8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계 21:9-11, 12-21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14 그 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는데, 기초들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성은 네모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17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 백사십사 규빗이었습니다.

18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 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랍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 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 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신약의 주요 내용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그분의 복사판으로 만들어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려는 영원한 경륜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다 (엡 3:9, 1:9-23).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연관된다(계 21:2, 3:12).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이 함께 연합되고 조성되어 한 실체, 곧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계 21:3, 22). 결국 삼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합병되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롬 5:10)의 과정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된다. (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83-18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의 가르침의 결과는 바로 모든 하나님-사람들의 집합체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한 실체이다(계 21:7, 히 2:10-11, 12:22).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님-사람들이 되게 하여,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확대와 표현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갈 3:26.4:7. 26. 31).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사람들이다(요 17:22-23 상, 입 4:4-6).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고 섞여 한 실체로 함께 건축된 구성체이다 (요 14:20, 23, 계 21:2-3, 9-23).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섞이고 연합됨으로 함께 건축된다(요 14:20, 23. 15:4 상, 고전 6:17).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문제이다.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증거이자 확대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인 신약의 육체 되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인 단체적 표현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새 창조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 장 1 절부터 3 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하나의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셔서 그분이 완전히 표현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목적하셨다 (엡

3:9-11, 1:9-11).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과 인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 그분의 옛 창조물로부터 거듭남과 부활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건축하는 일을 해 오고 계셨다. 이 건축하는 일의 최종 결과와 최종 완결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 창조물로 나타나시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 안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능력으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다. 오히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룬 건축물인데, 이렇게 하여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표현한다. (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84 쪽: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13 장, 181-18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18 장; 16 권, 새 예루살렘, 255 장

1/9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계 4:3

3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계 21:11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14:20, 23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히 2:11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8:29-30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 곧 신화(1)된 사람들(요 3:6, 히 2:11, 롬 12:2, 8:29-30)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우리가 신화된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위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계 21:11).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해 넣으셔서,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만드심으로 건축된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은 한 단체적인 실체가 된다. 새 예루살렘은 조성과 연결과 연합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들로 확대되신 것이다(요 3:29 상. 30 상, 14:20. 15:4 상. 고전 6:17).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신화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일종의 과정이다. 하나님 편에서 삼일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셨고, 우리 편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신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이자 가장 높은 복음이다(계 3:12).(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84-18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거룩한 성은 한 단체적인 인격이고, 이 단체적인 인격은 한 부부, 곧 세 부분으로 된 변화된 사람과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이다. 이것은 그 영과 신부께서 하나가 되신 것이다(계 22:17).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혼하고 함께 연합하여 한 실체가 된다. ... 남편은 아내이고 아내는 남편인데, 이것은 그들이 상호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선민과 합병하셔서 우주적이고 신성하고 비밀한 한 합병체, 곧 새 예루살렘이 되시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86--187 쪽)

신약의 전체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유일한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최종 목표이다.

성경 육십 육 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한다. 성경의 시작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그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방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삼일의 방면만을 지니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우리의'라고 하셨다(창 1:26). 이것은 하나님께서 셋,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며. 따라서 그분께 셋의 방면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한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많은 시대가 있는 역사의 과정이 있다. 그것은 조상들 시대와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를 포함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며 동시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든지간에 그분께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으시다. 성경의 시작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계시고, 성경의 마지막에는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난다. 시작에서 그분은 단순하신 하나님 곧 삼일이신 하나님이다. 마지막에서 한 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이고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종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지 상상해 보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들이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종에 속한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3 장. 64-6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6 권, 새 예루살렘, 256 장;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요한계시록, 428 장

1/10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계 21: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19:7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21:3-7, 23-27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5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

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24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5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26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7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단체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분을 만족하시게 하는 신부이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분께서 안식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으신 장막이다. (계 21:2 각주 3)

성경의 주제는 우주적인 부부의 신성한 로맨스이다.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 자신이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이다(창 2:21-24, 사 54:5 렘 2:2, 3:14, 31:32, 겔 23:5, 호 2:7. 19, 마 9:15. 요 3:29).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배우자로 비유하시고(사 54:6, 렘 3:1, 겔 16:8, 호 2:19, 고후 11:2, 입 5:31-32), 또한 그분 자신을 위한 거처로 비유하신다(출 29:45-46, 민 5:3, 겔 43:7, 9, 시 68:18, 고전 3:16-17, 6:19, 고후 6:16, 담전 3:15). 배우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만족시켜 드린다.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서 나와 아담의 배필이 된 것처럼(창 2:21-24),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분의 배필이 된다. (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8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다(고후 11:2). 결혼식 날은 천년왕국 시대일 것이다(계 19:7).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계 21:2, 9-10).

새 예루살렘은 그 인성에 따르면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어린양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인간 아내이다(계 21:2, 9). 이 인간 아내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성하신 분과 결혼할 수 있다.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은 그녀에게.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짝이 될 자격을 준다. 새 예루살렘은 인간적이므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인간 아내가 될 수 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하기 때문에 신성하신 그분과 결혼할 수 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선민의 신성한 남편(하나님의 완결된 체현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내는 인간적이고, 남편은 신성하다. 인간 아내는 신성하신 분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성하신 분과 결혼할 수 있다. 동일한 실체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될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신성하기 때문이다.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성 성분의 일부이다. 새 예루살렘은 그 인성에 따르면 아내이고, 그 신성에 따르면 남편이다. 그러나 신성한 남편인 새 예루살렘에는 인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 한 부부. 곧 아내와 남편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우주적인 한 부부가 될 것이다(비교 계 22:17).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이신 그 영께서. 이제는 완전히 성숙하여 신부가 된 믿는 이들과 하나 되신다(계 21:2, 9-10).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과 그분의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의 완결은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주적인 한 부부일 것이다(계 21:11, 23).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성을 그분의 아내로 삼아 결혼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완결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단장되어야 한다(계 21:19). 오늘 우리는 순금 기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진주 문이신 아들 하나님과 보석 성벽이신 영 하나님으로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완결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은 순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단장된다. 즉 그러한 요소들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단장된다. 다시 말하면, 완결되신 신성한 삼일성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해 넣으시어 우리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드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의 확대인 새 예루살렘을 얻으신다. (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85-1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고봉 메시지, 10 점, 요한복음 결정 연구, 서장*

1/11 목요일

아침의 누림

아 6:13, 4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솔라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솔라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4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아 1:2

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입니다.

아 8:14

14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고후 11:2-3

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3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엡 4:13, 15-16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로맨스는 아가에서 시적으로 묘사된다. 아가에서 추구하는 이는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술람미가 되는 과정을 통과한다(6:13, 4). '솔로몬'의 여성형인 '술람미'라는 그 연인의 이름은 아가 6 장 13 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그리하듯이(창 2:20-23) 이 시점에서 그녀가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솔로몬과 똑같은,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배필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어 그분과 결혼할 짝이 됨을 상징한다(고후 3:18, 롬 8:29). 변화의 여러 단계를 통과한 솔로몬의 연인은 솔로몬의 복사판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단체적인 술람미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으로 상징되신)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술람미로 상징된) 그분의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된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체로서 인간 미덕들 안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는 함께 결합되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완결된 술람미이다. (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9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궁극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술람미와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상징이다. 솔로몬왕이 시골 사람이 되어 시골 처녀를 자기의 왕비, 자기의 복사판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에게 구혼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구혼하셨다(마 9:15, 계 19:7, 비교 시 45:1-3, 9, 13-14).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혼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을 계시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애정 어리고 은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져 그분의 표현을 위해 신성하게 됨으로, 우리가 그분께 구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아 1:1-8, 고후 2:10, 출 33:11, 롬 8:4, 6, 고전 2:15). 술람미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우리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많은 연인이 결국에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복사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성취이다. 단체적인 이기는 이. 즉 솔로몬의 복사판인 술람미는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다.

술람미는 시골 처녀였다. 이제 솔로몬의 배필로서 그녀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똑같이 되었다.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의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의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요한계시록 21 장 9 절 하반절은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신부'라는 호칭은 주로 결혼식 날에 사용되지만. '아내'라는 호칭은 결혼 생활 내내 사용된다. 새 예루살렘은 하루와 같은천 년 (벤후 3:8 동안 있을 천년왕국에서는 신부일 것이며. 그 후 영원토록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내일 것이다. 천년왕국에서의 신부는 이기는 성도들만을 포함할 것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아내는 구속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포함할 것이다(계 21:7). (신약의 결론, 26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428 장, 197 쪽: 16 권, 새 예루살렘, 258 장, 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6 권, 새 예루살렘, 258 장

1/12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계 21:22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 3:12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왕상 7:15-22

15 그는 두 놋 기둥을 만들었는데, 각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었고 각 기둥의 둘레가 십이 규빗이었다.

16 또 그는 놋을 부어 만든 기둥머리 두 개를 기둥들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한 기둥머리의 높이가 오 규빗이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오

규빗이었다.

17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에는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가 있었는데, 한 기둥머리에 일곱 개가 있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일곱 개가 있었다.

18 그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다. 그물 주위에 있는 석류 두 줄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를 덮었다. 그리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19 주랑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직경이 사 규빗이었다.

20 두 기둥의 기둥머리는 그물 옆의 불룩한 부분 위 가까운 곳에 놓였다. 그리고 석류 이백 개가 줄지어 두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었다.

21 그는 성전 주랑에 기둥들을 세웠다. 그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2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기둥 만드는 일이 마무리되었다.

갈 2:9

9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통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기둥들은 또한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이기는 이들이다. 요한계시록 3 장 12 절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되리라는 것을 본다. 그는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기 때문에 '결코 다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은 이기는 이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3 장 12 절에서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주님은 이기는

이를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기둥으로 만드신다. 즉. 우리의 타고난 요소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그것을 대치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절에 있는 '되도록 하겠다 라는 말은 우리를 무언가로 조성하는 것 곧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를 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로 만들고 계시며 조성하고 계신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 자신을 신성한 흐름으로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본질로 대치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분의 변화시키는 요소로 말미암아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이 된다. (신약의 결론. 7 권, 믿는 이들, 112 장. 211-21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3 장 12 절은 이기는 이들이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21 장 22 절은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삼일 하나님 자신께서 성전이시라는 것을 본다. 따라서 '이기는 이들이 성전에 있는 기둥이 된다'라는 말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둥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비밀이다.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생활에서도 이기는 성도들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둥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도들은 때때로, 사실상 교회가 바로 삼일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기둥들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둥들이다. 이러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오는 시대에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이 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기둥이 된다는 것이 삼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기는 이들과 연합되시고 그들 안으로 조성되시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양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거처가 아니다. 오히려 성전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거처이며, 그들은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섬긴다. 한편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인 장막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거처인 성전이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 구속받은 이들 둘 다의 상호 거처이다. 그것은 장막인 동시에 성전인데. 장막은 구속받은 이들이고 성전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구속받은 이들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는데, 이러한 연합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치신 과정들과 그분께 구속받은 이들이 참여한 절차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5 장 4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거하는 것은 사실상 거주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호 거함, 상호 거주를 본다.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새 예루살렘은 상호 거처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신약의 결론. 7 권, 믿는 이들, 112 장, 212-213 쪽: 16 권, 새 예루살렘. 262 장. 82-83 쪽)

추가로 없을 말씀: 신약의 결론, 2 권, 그리스도, 33 장; 16 권, 새 예루살렘, 262 장; 위트니스리전집, 1983 년, 3, 성경의 기본 계시, 8-1 장

1/13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3:12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계 3:7-11

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닦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11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계 14:1-5

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 온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4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이를 소유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새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 이 모두가 이기는 이에 속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기는 이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 성 자체를 가리키며.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이기는 이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 이 모두가 이기는 이 안으로 일해 넣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새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상이 될 것이다.(계 3:12 각주 3)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구성체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건축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켜 드릴 것이다. 사탄은 불 못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 있는 거처에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되어 그분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은 그분 안에 살 것이다. 아무도 이렇게 심오한 사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이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아내일 것이다. 어떤 물질적인 건물도 아내가 될 수 없다. 아내는 유기적인 것. 곧 살아 있는 인격이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 신약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첫째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것은 장막으로 상징되었다 (요 1:14). 그 다음에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는 성전으로 상징되었다 (고전 3:16).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양의 아내(계 21:9-10)인 하나님의 거처도 열두 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과 열두 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로 구성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구성체이다(계 21:12, 14).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되는 이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한다. 이것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진주 문으로 상징된다. 진주는 죽음의 물에 사는 생물인 조개에서 산출된다. 모래알이 조개에 상처를 줄 때 조개는 그의 본질을 모래 주위에 분비하는데, 그것이 모래를 진주로 만든다. 조개의 상처는 죽음을 상징하고, 모래알 주위에 분비된 생명의 즙은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진주로 만든다.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요 3:5).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의 기본 요소가 되는데, 그것은 금으로 상징된다(계 21:18 하, 21 하). 그 성은 완전히 금이며, 길도 금이다. 모든 믿는 이들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영의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벽옥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버지의 본성(금), 아들의 구속과 우리의 거듭남(진주),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보석)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산출한다. 하나님의 거처는 또한 우리의 거처이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함께 건축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2 권, 성경의 기본 계시.9 장, 625-6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4 단계, 1 권, 20 과: 위트니스 리 전집, 1934-1997 년, 2 권, 영

1/14 주일

아침의 누림

계 22:1-7, 10, 14, 21

-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 7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10 그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겹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258 장

찬송: 976 (英) 주가 구속하신 백성 (中:775)

- 1 주가 구속하신 백성 주의 몸 주의 신부 주의 풍성 나타내는 주의 총만 또 표현 그의 모-든 것이 되신 주의 은-혜 선포해 주 영광에 참-어토록 주로 적-셔 주소서 (후렴)보라 거룩한 성 하나님 총만해 인성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표현.
- 2 경건의 큰 비밀이여 하나님 사람 연합 하나님의 영광만이 총만하고 찬란해 하나님-의 모든 총만 온전하-게 표현한 우주 안의 위-대한 몸 크신 그-릇이로다
- 3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의 집합체 진주처럼 보석처럼 주 영광에 부합돼 성의 중-심 보좌에서 생명 생-수 흐르네 생명나무이-신 주님 새 열매- 늘 풍성해
- 4 밝은 등인 그리스도 붙드는 금등잔대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성의 영광 되시네 하나님-이 건축하신 최종 완-성인 표현 하나님과 사-람 거처 주 계획-의 목표세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The All-inclusive Christ, chs. 5-6